

문화방송노보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이승준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경영센터 2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2021년 3월 15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본부 14기 집행부 오늘(15일) 출범!



최성혁 본부장 · 제승권 수석 부분부장 92.8% 지지로 당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4기 집행부가 오늘(15일)부터 2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한다. 출범식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상암동 MBC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될 출범식은 14기 집행부 구성원들과 전국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MBC본부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된 14기 집행부 임원 선거

결과, 최성혁(서울지부) · 제승권(부산지부) 조합원이 각각 14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본부장과 수석 부분부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는 총 투표권자 1,807명 중 1,378명이 참여해 투표율 76.3%이었으며, 찬성률 92.8%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투표는 모바일과 이메일로 진행되었으며, 휴직자 및 해외 파견자 등도 모두 투표에 참여하였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최성혁 신임 본부장은 “노동조합은 단결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MBC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제승권 신임 수석 부분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4대 임원 선거 결과 공고



문화방송본부 규약 제48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본부 임원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선자

- 본 부 장 : 최성혁 조합원(서울지부)
- 수석부분부장 : 제승권 조합원(부산지부)

2. 투표·개표 결과

- 투표권자 : 1,807명
- 투표자(투표율) : 1,378명(76.3%)
- 찬성자(찬성률) : 1,279명(92.8%)

2021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14기 출범식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사옥
골든마우스홀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임사

조합원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최성혁
본부장

고맙습니다.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조합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가슴 속에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의 힘은 단결에서 나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조합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뚝뚝 뭉쳐 싸웠고 이겨왔습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항상 그래왔듯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역, 직종이나 연차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이해하고 품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연대의 마음들을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버린 세상에서 오히려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소중한 일터에서 밝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회사를 상대로 협력과 견제의 자세를 분명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봄기운이 차오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 지낼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우울하기만 한 코로나19 시대의 끝이 머지않아 오리라 기대하며 그 무렵에는 우리의 일터와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활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14기 집행부가 꾸준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MBC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제승권
수석 부분부장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영방송 MBC를 지켜온 선배님들의 자리를 이어받아 MBC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왔던 우리는 조합이 회사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낮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지역은 더욱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가장 큰 힘은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공영방송 MBC의 한 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2012년과 2017년 파업을 거치며 우리는 본부체제의 중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MBC본부의 이름으로 다 함께 뭉쳐 싸워야 합니다. 서울과 강원, 경상, 충청, 호남 그리고 제주까지 전국 모든 조합원들의 가슴속에 MBC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많은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지부가 길고 힘겨운 파업을 반복하는 동안 생겨난 직종 간, 세대 간 갈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온 힘을 다해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정작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부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속을 다져 MBC본부가 단결된 힘으로 언제든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권력의 편에서 MBC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공영방송 MBC를 지킨 것은 언제나 우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직종, 세대 갈등 없는 MBC본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어려운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 MBC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단결된 우리 MBC본부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사



오동운
13기 본부장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년을 마감하며 지난 13기의 활동을 되짚어봅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기 위한 조합원들의 희생이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나 빠진 경영환경,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며 생존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은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조합의 길을 고민했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한결

같이 조합을 든든히 지켜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3기 지부장들과 집행부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은 늘 조합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14기를 책임질 최성혁 본부장, 제승권 수석 부분부장과 함께 전진하는 조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조합원으로 제 본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차원
13기 수석 부분부장

집단 지성의 MBC본부는 늘 언론 운동의 중심일 것입니다

이제 평조합원으로 돌아갑니다. 본부 중책을 맡은 지난 2년이 조합 발전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13기는 2017년 총파업 승리 이후 MBC 정상화 2~3년 차를 관통하는 시기였습니다. 직면한 문제들은 어느 때보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들

과 함께 노력했지만, 결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MBC본부는 늘 언론 운동의 중심에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본부 14기를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과 응원을 보냅니다. MBC본부 13기였음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하겠습니다.

신임 서울지부 부지부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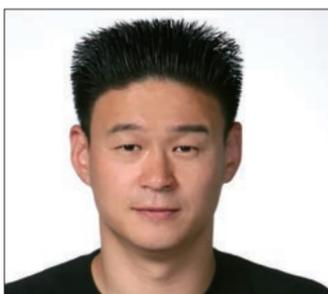
보도부문
이형빈
02년 입사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대변하는 일에 익숙지 않고 배움이 적은 탓도 있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일겁니다. 그래서 더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묻고 만나고 자주 듣게 되면 제가 가진 부족함이 조합원들의 지혜로 채워져 현명한 답안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음악을 듣기엔 막귀에 가깝지만 조합원의 음성 청취엔 명품귀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조합은 소중한니까.



편성제작부문
문형찬
04년 입사

고맙습니다. '투표'라는 과정을 거쳐 역할을 맡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란 상투적 단어가 바로 튀어나오네요^^ 망설이지 말고 영업을 개시해야 하겠습니다. 편성부문 조합원의 '마음 배달꾼, 문평'이 되어 로켓배송을 시작할게요! 무료고요 콜 즉시 달려갑니다! 마음을 연결하다 보면 우린 좀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영상디자인부문
김웅
03년 입사

부족한 저에게 한 표 한 표 모아주신 조합원들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17년 동안 MBC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건 건강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송환경이 어려운 시기이고, 조금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따라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과 마음을 조합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영부문
송경진
06년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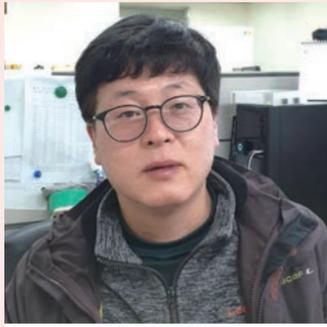
육아휴직 중 날아온 뜻밖의 소식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망설일 때, 제 주위에는 늘 좋은 동료와 선배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신나는 혹은 어렵고 힘든 결정을 마주할 때 조합원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꾸밈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부문
윤희석
04년 입사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지만 기술부문 선배님들의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비단,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같은 노동 조건의 희생과 양보만이 원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조합원 뿐 아니라 잠시 조합 밖에 계신 한 분 한 분 역시 조합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조합에 전달하겠습니다. 새로이 거듭나려는 조합에 다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신임지부장소개



강원영동 황상익
10년 입사/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솔한 지역 방송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고충을 해결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광주 정용욱
04년 입사/경영

지역사의 생존이 위기를 넘어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광주MBC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미래 청사진 부재, 무기력한 조직 분위기 등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지부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벼랑 끝 광주MBC의 정상화를 위해 14기 노조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대구 윤태호
00년 입사/보도

노조 경험이 일천한 제가 지부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지지를 버팀목 삼아 전진하겠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금, 지부장의 리더십보다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방송환경 구축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풀기 위해 많이 듣고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경영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전 이교선
04년 입사/보도

길고 어려운 숙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찾을 겁니다. 희망과 기대는 머지않아 두근거리는 현실로, 우려와 분노는 따뜻한 위로의 길 위에 올려놓읍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시죠.



목포 조성택(연임)
03년 입사/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과 지역이 하나 되어 신뢰받는 MB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채충현
01년 입사/편제

제14대 부산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합은 시사각각 변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민주시민들의 바람인 공정방송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을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의 역량을 한 데 모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경영행위를 감시, 견제하는 조합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서현
03년 입사/편제

나쁜 대본에 좋은 배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대본에 나쁜 배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대본을 만들어 2년 뒤 모든 구성원들이 14기는 좋은 작품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여수 김종수
05년 입사/보도

“우리는 지금 광기(狂氣)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입사 당시 인터넷에 회자된 문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를 직설적으로 담아낸 표현이었습니다. 우려와 고민이 넘쳐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았지만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MBC의 선명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연대와 소통으로 우리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원주 권혁수
06년 입사/기술

부족한 저에게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무게에 압축함을 느낍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기분처럼 설렘 반 걱정 반이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전주 김관중
05년 입사/영상

많은 사람들이 ‘위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가진 집단 지성과 양심의 힘은 그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미주한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더 치열하게 조합의 길을 찾겠습니다. 생존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더욱 세밀하게 바라보고,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 장세일
04년 입사/편제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때, 다시 한번 노조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돌아해보면 조합은 어떤 도전에도 굳건히 맞설 때 가장 조화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조합원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발판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 이재규
04년 입사/보도

엄중한 시기, 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춘천MBC, 더 나아가 지역MBC, 더 크게 MBC의 생존과 발전에 밀알의 역할이라도 하리라는 조합원들의 체찍이라 생각하고 직에 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포항 이상민
95년 입사/기술

지상파방송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맞서야 할 버거운 현실에서 포항지부는 갈라진 상처까지 보듬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본분과 생존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기에 쉽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소통과 화합이 난관을 돌파하는 해결책이 되리라 믿으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한 걸음씩 걸어하겠습니다. 격려와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